

예산통 군수에 행정 전문가 등 5명 도전

■보성군수 입지자

보성군수 후보로는 25일 현재 재선에 도전하는 정중해 현 군수에 맞서 김철우 군의회 의장, 박철현 전 광주시 도시공사 사장, 이탁우 전남도의원, 하승완 전 군수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예산 전문가로 알려진 정중해 군수는 보성농고를 졸업하고 1969년 공무원 시험에 응시, 국가공무원 운수직과 행정직, 서울시 공무원 행정직에 모두 합격했다. 1970년 영등포 우체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975년 노량진 전화국 근무 시 당시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2004년 초까지 예산업무만 담당했다. 퇴직 후 철도시설공단 재무본부장으로 임명돼 2년째 근무하던 2006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부를 받고 출마, 2~3대 하승완 전 군수의 3선을 저지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보성군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 3천억원 시대를 열었으며 무엇보다 취임 초기 500억원에 불과하던 농림어업 예산을 1천억원 이상으로 늘렸다. 또 지방자치브랜드 대상 최우수 경영인상과 지식혁신 경영대상 등 인기 4년 동안 96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며 19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내 대내외에 '북차 수도' 보성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보성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김종표(63) 무소속, 김철우(46) 민주당, 박철현(64) 민주당, 이탁우(52) 민주당, 정중해(63) 민주당, 하승완(58) 민주당

정 군수는 "재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벌교일산 일대지와 조성농공단지 조성, 벌교꼬막 웰빙센터 건립, 관광농차생태공원 조성, 전국 최대의 씨감자 생산 단지 조성 등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세계 속의 관광 보성, 투자자가 찾아오는 희망 보성, 사랑을 나누는 복지 보성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의장은 지난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평민당의 현정민권회 남·해운대구 청년부장을 맡으면서 정계 입문했다. 그리고 1990년께 고향으로 돌아와 유준상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청년부장을 했다. 이어 1998년 지방선거에 도전, 당선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리 3선 군의원이 됐다.

김 의장은 "지난 12년여 동안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고 행정 경험도 쌓았다"며 "각종 관광·문화·예술 자원이 있는 보성군에 C 자형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벌교리대를 관광상품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철현 전 사장은 보성군 벌교읍사무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출발했으나 내무부로 발탁됐으며 이어 광주 시에서 공보관·비서실장·자치행정국장·상수도본부장 등 요직을 거친 32년 경력의 '행정 전문가'. 지난 2004년 퇴직 후에도 곧바로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도시공사를 전국 최우수공기업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5월 보성으로 내려와 출마를 준비했으나

정중해 "예산 3천억시대 활짝" 재선 도전에 박철현 다크호스로

김철우·이탁우·김종표·하승완 '조직력' 내세워 본격 표밭갈이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상태. 하지만, 공천 시에는 파괴력이 상당한 다크호스로 평가되고 있다. 또 화합형 리더로 현재 보성군민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다.

박 전 사장은 "국가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 행정중심도시로 보성을 만들고 해양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해 1개 면에 1개의 특화작물을 육성해 더불어 잘 사는 보성, 모두가 더 행복한 보성을 건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벌교 출신의 이탁우 도의원도 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고향에서 사업에 성공한 뒤 군의회 선거에 도전, 재선을 했으며 이어 2 번의 도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4선 연승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22개 시·군, 33개 중목 조직을 갖춘 생활체육회 전남도회장을 맡고 있어 회원 20만여명이 이번 군수 경선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8년여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2008년 농림수산위원으로서 사막 단식 농성을 해서 버경영안정자금 437억원 확보한 일 ▲2004년 친환경급식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일 ▲다른 지역에 빼앗길 뻔했던 64만평 규모의 벌교일산산업단지 유치 등이 가장 큰 성과며 기억에 남는다"며 "군수가 된다면 농촌·농업·농민 등 3농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벨트 조성, 노인복

지 증대 등을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4파전으로 진행되던 민주당 경선에 하승완 전 군수가 최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 3기 군수를 지낸 하 전 군수는 지역에 아직도 조직이 견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 전 군수는 조만간 주민등록을 보성으로 옮기고 다음달 3일 출마기념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 전 군수는 "거의 출마 뜻을 접은 상태였으나 지지자들이 후보 추대위를 구성하는 등 출마 권유가 너무나 거셌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종표 성균관 청년유도회 전남본부회장은 지난 2002년, 2006년 지방선거에 이어 3수에 나섰다. 김 회장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경제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외에 재선의 유동률(73) 전 전남도의원도 군수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보성읍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전남도 약사회장을 맡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쟁점 & 변수

보성군은 보성읍과 벌교읍이 전통적으로 대립하던 지역. 이번 선거에서도 양 지역의 대립으로 소지역주의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읍을 중심으로 한 1선거구의 인구보다 벌교읍을 중심으로 한 2선거구의 인구가 2천500여명이 많은 상황.

그런데도 1선거구에서 김철우 군의회 의장·박철현 전 광주도시공사 사장·정중해 군수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2선거구에서는 이탁우 도의원만 출전, 구도 상으로 이 의원이 유리한 상황이다. 물론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정중해 현 군수의 지지도가 벌교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 심리 승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보성지역위원장 박상천 의원의 의중과 박주선 최고위원 조직의 향배도 승패를 가름하는 변수다. 우선 박상천 의원은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했다.

하지만, 누구나 선호하는 후보는 있는 법. 경선이 다가오면 어떤 식으로든 박 의원의 의중이 지역 당원들에게 전달돼 승패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 보성에는 지역출신인 박주선 최고

①보성읍 vs 벌교읍 대결?

②박상천-박주선 조직 선택은

(지역위원장) (지역출신 최고위원)

③'예산 증가율' 논쟁 결말은

위원의 영향력 밑에 있는 조직이 여전히 견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직은 그동안 김철우 군의회 의장의 관리 하에 유지됐으나 박 최고위원 계보로 평가되는 하승완 전 군수의 출마로 조직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중해 군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찬반을 다룬만한 지역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특히 정 군수가 예산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더욱 흥미를 끈다.

최근 일부 보성군의회원이 이번 4기 군수 임기 동안 보성의 예산 증가율이 전남에

서 최하위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이탁우 도의원도 "그동안 재원을 시의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예산을 선심성 전시행정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논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 군수는 "취임 직전 2천300억원의 예산이 3천300억원으로 늘었으며 또 군수의 능력의 가능자가 되는 보조사업 증가율은 전남 5위나 된다"며 "특히 보성군은 부채가 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동을 통해 지난해 지방재정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도의원 입지자

보성군에서는 2명의 전남도议원을 뽑는다. 당초 현직 도의원 2명이 모두 군수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으나 최근에 1명이 회군을 선언하면서 선거구도가 복잡해졌다.

1선거구(보성읍, 노동·미력·득량·회천·웅치면)에서는 이창재 민주당 보성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백준선 보성군의원, 선형수 5대 운동본부 전남 상임대표, 양승 보성군 배구협회 부회장, 황병순 전남도의원 등 5명이 도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재선의 황병순 도의원은 군수선거 출마 행보를 하다가 되돌아 온 경우. 그는 "군수 선거에 출마하라고 요청받은 지지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보다 활기찬 보성 건설에 쓰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으로 나서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창재 운영위원은 "화순·보성·장흥·고흥 4개 군을 통합하기 위해 4개군 도의원과 군의원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통합시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백준선 군의원은 보성군청과 관내 면에서 27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지난 1997년 퇴직한 후 2002년부터 지방선거에 도전, 재선에 성공했다. 지역의 문화사업에 많은 공을 들여온 백 의원은 "보성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쌀 생산 조정제를 추진,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2개 선거구에 9명 대거 출사표

후보들 "지역봉사 앞장" 한목소리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이창재(만·57)	민주당 보성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백준선(만·65)	보성군의원
	선형수(만·46)	5대운동본부 전남 상임대표
	양 승(만·51)	보성군 배구협회 부회장
	황병순(만·65)	전남도의원
2	김선배(만·49)	벌교시의버스터미널 대표
	박택근(만·61)	고흥 영주교 교장
	이국성(만·61)	보성군의원
	임명규(만·52)	벌교농협 조합장

선형수 상임대표는 미술인 출신의 사회운동가. 20년 이상의 시민사회활동을 기반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장을 던졌다.

양승 부회장은 국제와이즈맨과 보성초·중 운영위원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01년 새천년민주당 지구당 민원부장을 하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선거는 첫 도전이다.

2선거구(벌교읍, 조성·겸백·율어·복내·문덕면)는 이탁우 현 도의원 군수 출마로 무주공산이다. 이에 김선배 벌교시의버스터미

널 대표, 박택근 고흥 영주교 교장, 이국성 보성군의원, 임명규 벌교농협조합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선배 대표는 벌교읍 경기도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다가 지난 2005년 벌교로 다시 돌아와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환경운동을 했다. 그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개발,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택근 교장은 조선대 체대를 졸업하고 전남테니스협회 전무와 부회장, 벌교중·상고 총동문회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에 나선다.

재선의 이국성 의원의 폭 넓은 지역활동을 기반으로 도의원 선거에 나섰다. 임명규 조합장은 지난 2001년부터 8년 동안 벌교농협을 이끌었다. 임 조합장은 "활력 넘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살만한 고향마을 만들기 위해 힘을 더하고 자 도의원에 뜻을 갖게 됐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광주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1949년 10월 10일 개교

1950년 10월 10일 개교

1951년 10월 10일 개교

1952년 10월 10일 개교

1953년 10월 10일 개교

1954년 10월 10일 개교

1955년 10월 10일 개교

1956년 10월 10일 개교

1957년 10월 10일 개교

1958년 10월 10일 개교

1959년 10월 10일 개교

1960년 10월 10일 개교

1961년 10월 10일 개교

1962년 10월 10일 개교

1963년 10월 10일 개교

1964년 10월 10일 개교

1965년 10월 10일 개교

1966년 10월 10일 개교

1967년 10월 10일 개교

1968년 10월 10일 개교

1969년 10월 10일 개교

1970년 10월 10일 개교

1971년 10월 10일 개교

1972년 10월 10일 개교

1973년 10월 10일 개교

1974년 10월 10일 개교

1975년 10월 10일 개교

1976년 10월 10일 개교

1977년 10월 10일 개교

1978년 10월 10일 개교

1979년 10월 10일 개교

1980년 10월 10일 개교

1981년 10월 10일 개교

1982년 10월 10일 개교

1983년 10월 10일 개교

1984년 10월 10일 개교

1985년 10월 10일 개교

1986년 10월 10일 개교

1987년 10월 10일 개교

1988년 10월 10일 개교

1989년 10월 10일 개교

1990년 10월 10일 개교

1991년 10월 10일 개교

1992년 10월 10일 개교

1993년 10월 10일 개교

1994년 10월 10일 개교

1995년 10월 10일 개교

1996년 10월 10일 개교

1997년 10월 10일 개교

1998년 10월 10일 개교

1999년 10월 10일 개교

2000년 10월 10일 개교

2001년 10월 10일 개교

2002년 10월 10일 개교

2003년 10월 10일 개교

2004년 10월 10일 개교

2005년 10월 10일 개교

2006년 10월 10일 개교

2007년 10월 10일 개교

2008년 10월 10일 개교

2009년 10월 10일 개교

2010년 10월 10일 개교

2011년 10월 10일 개교

2012년 10월 10일 개교

2013년 10월 10일 개교

2014년 10월 10일 개교

2015년 10월 10일 개교

2016년 10월 10일 개교

2017년 10월 10일 개교

2018년 10월 10일 개교

2019년 10월 10일 개교

2020년 10월 10일 개교

2021년 10월 10일 개교

2022년 10월 10일 개교

2023년 10월 10일 개교

2024년 10월 10일 개교

2025년 10월 10일 개교

2026년 10월 10일 개교

2027년 10월 10일 개교

2028년 10월 10일 개교

2029년 10월 10일 개교

2030년 10월 10일 개교

2031년 10월 10일 개교

2032년 10월 10일 개교

2033년 10월 10일 개교

2034년 10월 10일 개교

2035년 10월 10일 개교

2036년 10월 10일 개교

2037년 10월 10일 개교

2038년 10월 10일 개교

2039년 10월 10일 개교

2040년 10월 10일 개교

2041년 10월 10일 개교

2042년 10월 10일 개교

2043년 10월 10일 개교

2044년 10월 10일 개교

2045년 10월 10일 개교

2046년 10월 10일 개교

2047년 10월 10일 개교

2048년 10월 10일 개교

2049년 10월 10일 개교

2050년 10월 10일 개교

2051년 10월 10일 개교

2052년 10월 10일 개교

2053년 10월 10일 개교

2054년 10월 10일 개교

2055년 10월 10일 개교

2056년 10월 10일 개교

2057년 10월 10일 개교

2058년 10월 10일 개교

2059년 10월 10일 개교

2060년 10월 10일 개교

2061년 10월 10일 개교

2062년 10월 10일 개교

2063년 10월 10일 개교

2064년 10월 10일 개교

2065년 10월 10일 개교

2066년 10월 10일 개교

2067년 10월 10일 개교

2068년 10월 10일 개교

2069년 10월 10일 개교

2070년 10월 10일 개교

2071년 10월 10일 개교

2072년 10월 10일 개교

2073년 10월 10일 개교

2074년 10월 10일 개교

2075년 10월 10일 개교

2076년 10월 10일 개교

2077년 10월 10일 개교

2078년 10월 10일 개교

2079년 10월 10일 개교

2080년 10월 10일 개교

2081년 10월 10일 개교

2082년 10월 10일 개교

2083년 10월 10일 개교

2084년 10월 10일 개교

2085년 10월 10일 개교

2086년 10월 10일 개교

2087년 10월 10일 개교

2088년 10월 10일 개교

2089년 10월 10일 개교

2090년 10월 10일 개교

2091년 10월 10일 개교

2092년 10월 10일 개교

2093년 10월 10일 개교

2094년 10월 10일 개교

2095년 10월 10일 개교

2096년 10월 10일 개교

2097년 10월 10일 개교

2098년 10월 10일 개교

2099년 10월 10일 개교

2100년 10월 10일 개교